

40평형 아파트 식생활용품 수납실태에 따른 부엌가구디자인

The Kitchen furniture design Based on Stored items of Cooking Area in 40-pyung type apartment Houses

김기인* 김선중** 권명희***
Kim, Gi-in Kim, Sun-joong Kwon, My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kitchen furniture design for 40-pyung apartment Houses based on stored item of Cooking, Eating and Utility Area. The research data is gotten at a field study of stored items of Cooking, Eating and Utility Area and depth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The kitchen furniture the preparation unit and the sink, the kitchen table, the heating unit and the service table, arranged at the tall storage. 2)The total bulk considered and holding volume (2.7m³) with ground clearance (40%) planned with about 4.21m³. 3)Assumed at height and 162cm did a lower part height with 860mm and the upper depth 340mm, did with 700mm where raises. the storage the ceiling which raises will select and considered and with 2200mm did. 4)Arrangement of the kitchen the kitchen form which is an open type (L/DK or L·D·K) arranged many in forms of letter.

키워드 : 부엌가구디자인, 수납물품보유량, 40평형 아파트, 수납방식

Keyword :The kitchen furniture design, Stored items and quantity, 40-Pyung apartment house, Stored for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이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거주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전반적인 소득의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아파트 건설도 S건설사는 한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40%가 40평형이며, P건설사 역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건설하여 40평형 이상이 66%를 차지하며 과거 소형평형 위주에서 벗어나 대형화, 고급화 되었다¹⁾.

하지만 부엌물품의 종류와 치수, 보유량을 고려한 수납 계획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며, 최근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주방가전기기에 대한 수납공간의 고려가 없는 상황이다(윤복자 외 5인, 1999: 박영순·최지영, 2005).

수납문제를 아파트 평형별로 살펴보면 20평형과 30평형, 40평형에서 공통적으로 수납공간 부족과 부적절한 선반구획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혔다. 다만 40평형의 경우 수납공간 부족보다는 부적절한 선반구획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권명희, 2001) 이는 수납문제가 아파트의 평수가 넓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각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수납물품의 종류, 수

납방식, 수납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납공간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물품의 수납위치 및 체적(심현숙·신경주, 1988)과 물품의 종류 및 개수(박영순 외 3인, 1997: 윤복자 외 5인, 1999)가 연구되어졌으나 윤정숙(2001)의 연구에서는 수납물품의 수납위치만을 나타내었다. 이들 모두 수납부족 문제와 관련해 부엌기기의 효율적인 수납 방법과 배치방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납장의 평면계획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수납공간을 모듈, 시스템화하는데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용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홍미경·오혜경, 1997)

따라서 부엌 가구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추어 40평형 아파트의 부엌 수납장의 체적을 산출하고 합리적인 수납방법을 고려한 입체적 가구 디자인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증가폭이 큰 40평형 아파트의 수납가구의 문제와 주부의 불만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엌가구 디자인 개발을 위해 부엌에 수납한 식생활용품의 종류와 위치를 고려한 평균수납체적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부엌 가구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40평형 아파트 거주가구의 부엌공간의 보유물품을 유형화시키고 분류 된 물품을 중심으로 생활주기에 따른 수납위치를 파악한다.

둘째, 부엌수납가구의 위치별 수납 된 물품의 종류와 개

* 정희원(주저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교신저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희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수료

1) 중앙일보, 2005.03.03, 지방아파트, 대형화·고급화'바람'

수, 수납방식을 체적을 산출한다.

셋째, 심층면접 자료 분석을 통한 주부들의 부엌 공간 수납가구의 수납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부엌물품의 수납위치, 물품 양과 주부의 수납요구를 고려하여 수납가구를 디자인한다.

3.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부엌수납가구디자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1) 공간적 제한

식생활용품을 수납하고 있는 공간은 부엌, 식당, 거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용품을 가장 많이 수납하고 있는 부엌공간으로 한정하여 수납실태를 파악한다.

2) 조사대상의 제한

현재 부엌가구생산업체는 부엌가구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대형아파트 거주자를 주 고객으로 하여 생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40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식생활용품(생활용품)의 보유실태는 주택의 규모, 생활주기,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4인 가족이면서, 중·고등교육기, 성년기²⁾로 제한하여 조사한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수집방법

본 연구는 2008년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40평형 아파트 거주가구의 식생활용품 수납 실태를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³⁾ 자료는 조사 대상 가구를 호별 방문하여 식생활공간과 식생활용품의 실측조사와 사진촬영, 주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공간적 범위는 식생활영역⁴⁾ 중 부엌 공간이며 주택규모는 대형아파트 중 가장 증가율이 빠른 40평형으로 하였다. 생활주기는 선행연구 결과 초등교육기를 제외한 중등교육기와 성년기로 한정하고 가구원수도 4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분석가구수는 중·등교육기 6가구와 성년기 6가구 등 총 12가구를 심층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의 40평형 아파트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12가구를

2) 이성아(1997) 아파트불박이 수납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조사대상은 46평 아파트로서 가족생활주기는 성년기(45.3%), 교육기(45.3%)가 대부분이다.

3) 조사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로 한정하였는데 서울 강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리드해나가는 선두그룹의 주체로 차후에 이들의 생활양식이 점차 일반화되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부엌, 다용도실, 식당, 거실 등 식생활용품이 수납된 모든 공간

유의표집하였다.

4. 분석내용 및 방법

본 자료는 식생활영역 중 부엌공간에 수납한 물품의 종류, 개수, 수납위치, 체적과 부엌수납가구의 체적의 현장실태와 심층면접 자료를 질적 분석을 하였으며 빈도수, 백분율, 평균값을 파악하였다.

5. 식생활용품분류 및 실측방법

보유하고 있는 식생활용품을 각 물품의 용도와 크기, 수납위치를 고려하여 물품의 종류를 조리용품류, 상차림용품류, 식품류, 소모품, 기타류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리용품류는 용도와 수납위치를 고려하여 일반식기류, 조리준비도구류, 조리보조도구류, 조리기구류, 식품저장용기류로 재분류하였다. 조리준비도구류는 음식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이고 조리보조도구류는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이다. 조리기구류 가전기기와 가열을 통해서 조리하는 과정의 물품이다. 또한, 상차림용품류는 식탁을 차릴 때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하였다. 그 밖에 식품류, 소모품, 기타류를 통해 총 9가지의 유형으로 대분류하였다. 대분류는 수납방식과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분화 하여 31가지 유형으로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실측은 수납방식을 고려하여 접시류와 공기류, 대접류는 5개 단위로 쌓아두고 수납된 형태대로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나머지 식생활 용품의 경우는 단위별 크기를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 가구의 부엌 특성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12가구의 부엌가구의 종류와 체적은 표1과 같다.

가구배치는 ㄱ자형 배치(11가구)가 ㄷ자형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부엌수납가구는 상·하부장, 키큰장, 코너장 등이 있었고 가구체적은 중등기의 경우 2.40~6.07m³이고 성년기가구는 3.34~5.94m³까지 분포되어 주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주기별 수납장의 평균체적은 중등기의 경우 상부장 1.01m³이고 하부장 1.54m³, 키큰장 1.31m³, 코너장이 0.5m³으로 나타났다. 성년기의 경우는 상부장 0.90m³, 하부장 1.90m³, 키큰장 0.91m³, 코너장 0.36m³로 나타나 생활주기에 상관없이 하부장에 수납된 물품의 체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평균체적은 중등교육기가 4.50m³, 성년기가 4.19m³로 전체평균 4.34m³ 이었다. 중등2 가구의 부엌가구 체적은 2.40m³로 부엌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오래된 APT이었고 대부분의 APT는 거주하면서 부엌개조가 있었다. 키큰장은 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적이 가장 컸다. 또한 조리대 상부장과 개수대 상부장과 가열대하부장은 모든 가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표1. 조사가구의 위치별 수납장 체적

단위:m³

조사 가구	부 역 개 조	부 역 가 구 배 치 유 형	수납 위치																합 계
			상부장						하부장						키 큰 장	코너장		식기 세 척 기 안	
			준 비 대	개 수 대	조 리 대	가 열 대	배 선 대	냉 장 고 위	준 비 대	개 수 대	조 리 대	가 열 대	배 선 대	아 일 랜 드		상 부	하 부		
중등1	○	ㄱ자	0.12	0.27	0.24	0.26		0.23	0.33	0.61		0.45			1.93	0.16	0.36	0.36	4.96
중등2	×	ㄱ자	0.09	0.22	0.21	0.16	0.12		0.24	0.36	0.22	0.29	0.22			0.01	0.26		2.40
중등3	○	ㄱ자	0.44	0.17	0.14	0.11				0.73	0.27	0.39			0.77	0.14	0.33		3.49
중등4	○	ㄱ자	0.24		0.09	0.17	0.11	0.16	0.16	0.43	0.33	0.25	0.33		2.37	0.20	0.45	0.35	5.29
중등5	○	ㄱ자	0.19	0.29	0.14	0.07		0.12	0.41	0.62	0.14	0.34			0.85	0.14	0.40	0.34	3.71
중등6	○	ㄱ자	0.12	0.27	0.24	0.26		0.23	0.33	0.61		0.45		0.75	1.93	0.16	0.36	0.36	5.71
평균	-	-	0.20	0.20	0.18	0.17	0.14	0.12	0.24	0.56	0.16	0.36	0.09	0.13	1.31	0.14	0.36	0.23	4.26
성년1	○	ㄱ자			0.10	0.21	0.25			0.59	0.19	0.35	0.99		0.95		0.37		4.00
성년2	○	ㄱ자	0.08		0.24		0.08	0.22		0.47	0.41	0.45	0.23		1.24		0.32	0.32	3.74
성년3	○	ㄱ자	0.36		0.07	0.14		0.20	0.54	0.44	0.10	0.28			1.48	0.08	0.24	0.32	3.93
성년4	○	일자	0.28	0.23	0.14	0.15		0.31	0.59	0.89	0.33	0.35			0.27				3.54
성년5	○	ㄷ자	0.21	0.22	0.24	0.19	0.25	0.24	0.37	0.58	0.64	0.37	0.55		1.23			0.85	5.94
성년6	○	ㄱ자	0.35	0.31	0.18			0.20	0.28	0.56	0.48	0.34			0.32		0.32		3.34
평균	-	-	0.21	0.13	0.16	0.11	0.10	0.19	0.30	0.59	0.36	0.36	0.29	0.00	0.91	0.01	0.35	0.11	4.08

2. 수납위치별 식생활용품 보유량⁵⁾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코너장 등 수납위치별 수납물품의 보유현황은 표2와 같다. 가장 많은 종류의 물품을 수납한 곳은 키큰장으로 상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상부장에는 준비대(26종류)와 조리대(26종류), 하부장에는 준비대(27종류), 개수대(23종류), 조리대(23종류)에 많은 종류의 물품을 수납하였다. 수납위치에 따라 가구당 수납물품의 개수를 살펴보면 상부장(190.6개), 하부장(134.6개), 키큰장(132.2개), 비수납(74.8개), 코너장(70.8개), 식기세척기안(7.3개)순으로 가구별 보유물품의 1/2이상 상·하부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유물품의 체적은 평균 2.7m³로 부엌가구의 평균체적 4.26m³의 63% 정도로 나타났다. 위치별 수납물품체적은 하부장 0.8m³(2

9.9%), 상부장 0.6m³(24.1%), 키큰장 0.6m³(20.9%)순으로 수납하여 하부장에 보유물품 체적의 1/3을 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위치에 따라 상부장이 하부장 보다 많은 개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만 하부장의 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크기와 무게를 고려한 수납으로 인한 것이다.

3. 수납방식

부엌식생활용품의 수납방식은 그림1과 같다. 조리용품류에서 일반식기류는 거의 모든 가구가 수평수납(12가구), 이형수평수납(12가구), 단독수직/수평수납(12가구)하고 있었으며 조리준비도구류는 단독수직/수평수납(9가구), 정리없이뒤섞인 경우(12가구)가 많았고 조리준비소기구 경우는 모든 가구에서 정리없이뒤섞여 보관(12가구)하고 있었다. 조리보조도구류는 이형수평수납(12가구)과 단독수직/수평수납(11가구)이 가장 많았으며 국자, 뒤지개류는 정리없이뒤섞임(12가구)과 담아두기 수납(9가

구)을 많이 하였다. 조리기구류의 경우 단독 수직/수평수납(12가구)이 많았고, 이형수평수납(11가구)이 많았고 식품저장용기구류의 경우 단독 수직/수평수납(12가구)이 가장 많은 방식으로 수납되고 있었다.

또한 상차림용품류는 이형수평수납(11가구)과 정리없이 뒤섞임(12가구), 담아두기(11가구) 등의 방법으로 수납되고 있었으며 식품류와 소모품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단독 수직/수평수납(12가구)으로 수납되고 있었다. 기타류는 이형수평수납(11가구)과 선반 고리에 걸어서 보관(11가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엌용품을 수납할 경우 이형수평수납하거나 단독수평/수직수납, 정리없이뒤섞여 보관하고 있어 주로 포개어 놓음을 알 수 있었다.

표2. 가구당 수납장 위치별 수납물품의 보유현황 N=12

위치		종류*	평균 개수 (개)**	체적 (m³)	체적 분포 (%)
상 부	준비대	26	82.4	0.3	10.2
	개수대	19	42.7	0.0	2.5
	조리대	26	29.3	0.1	4.2
	가열대	6	5.5	0.0	1.3
	배선대	19	18.0	0.1	2.4
	냉장고위	16	12.7	0.1	3.5
	소계	-	177.9	0.6	24.1
하 부	준비대	27	48.3	0.3	11.9
	개수대	23	30.3	0.2	6.1
	조리대	23	30.3	0.1	5.2
	가열대	6	3.1	0.0	0.3
	배선대	20	16.0	0.1	5.3
	아일랜드	11	6.6	0.0	1.2
	소계	-	305.9	0.8	29.9
키큰장		30	132.2	0.6	20.9
코 너 장	상부	22	40.3	0.1	3.8
	하부	27	30.5	0.1	5.5
	소계	-	172.5	0.2	9.3
식기세척기안		10	7.3	0.0	0.5
합 계	-	535.5	2.3	84.8	
비수납		30	74.8	0.4	15.2
총 계	-	610.3	2.7	100.0	

*소분류 유형 **세부 품목

5)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40평형대 가구의 수납실태는 생활주기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생활주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1. 수납방식별 사진

4. 수납요구

조사대상주부의 수납요구는 표3과 같다. 조사대상주부의 수납습관 중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리기구는 냄비(47.3%), 후라이팬 (36.8%)로 이들의 보관장소는 싱크대하부(25%)와 개수대하부(18.8%)와 같이 주로 하부장에 수납되어졌다. 불편사항으로는 ‘정리불편’(45.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에 대한 의견으로는 만족이 높은 가구는 인출식서랍장과 아일랜드형 가구에 대해서는 만족이 높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즉, 인출식 서랍장에 대해서는 ‘만족한다’(33.3%)는 의견과 ‘구획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일랜드형 주방은 41.7%가 ‘괜찮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하고 싶다’

는 의견도 33.3%로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았다. 키큰장의 경우 ‘불편하다’(25%)는 의견과 ‘너무 깊다’(16.6%)를 포함하여 불편을 토로하는 의견이 전체의견에 1/2에 달했으며 코너장 역시 ‘불편하다’(58.3%)는 불만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상판 선반은 ‘편리하다’(58.3%)는 의견이 월등높았으며, 시스템키친은 ‘깔끔하다’(33.3%)는 의견과 ‘괜찮은 것 같다’(25%)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갤러리형 주방의 경우는 ‘부적합하다’(25%)는 의견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58.3%로 나타났다. 수납원칙에 관한 의견 중 배치방법에 대해서는 사용횟수에 따라 배치한다는 의견이 31.6%였

으며 계절용품의 경우는 90.9%로 대다수가 분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엌첨가기능에 다과(25%)와 여가활동(25%)이 가능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외불만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으나 수납장부족(20%)과 부엌 또는 조리환경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났다.

수납요구에 대한 설문 결과 전반적인 응답이 중등교육기와 성년기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5. 보유 물품 모듈화

부엌수납가구디자인을 위하여 시장조사⁶⁾를 통해 각 가정이 수납하고 있는 수납물품의 종류별 실제 크기를 실측 하였다. 물품은 수납방법을 고려하여 단독수직/수납인 병류, 수평수직수납물품, 단독수납인 가전기기류로 분류하여 높이 모듈을 작성하였다.

물품은 수납방법을 병류는 후추병, 조미료통 등 11종류로 높이에 따라 30㎜ 모듈로 구성하여 높이 90~330㎜까지의 크기임을 알 수 있었다. 조리용품은 실태조사에서 포개어 놓는 것을 고려하여 접시 10개의 높이, 대접은 5개의 높이를 산출한 결과 30㎜ 컴받침 높이에서 다라이 높이가 360㎜까지 12종류로 구분되었다. 가전기기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실측되어졌으며 60mm 인덕션쿡의 높이에서 핸드믹서기 높이가 360㎜까지로 구분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조사 대상별 부엌가구의 특성은, 수납장의 체적이 평균 4.34m³로 중등교육기 4.50m³, 성년기가 4.19m³이었으며 성년기 가정의 부엌가구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선대 상·하부 수납장과 아일랜드 하부장은 적었으며, 키큰장은 한 가구를 제외 한 모든 가구(11가구)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보유물품의 종류는 용도와 수납위치를 고려하여 31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610개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물품의 체적은 비수납 물품을 포함하여 2.7m³으로 나타나 가구체적의 62%로 나타났다.

표3. 수납요구 분류표

N=12, 단위 : %

분류	의견	의견			
		남비(47.3)	후라이팬(36.8)	기타(15.4)	
수납습관	일상조리도구	남비(47.3)	후라이팬(36.8)	기타(15.4)	
	보관장소	싱크대하부(25.0)	개수대하부(18.8)	기타(56.2)	
	불편사항	정리불편(45.4)	기타(54.6)		
가구의견	인출식	만족(33.3)	구획필요(25.0)	기타(41.7)	
	키큰장	만족(25.0)	불편(25.0)	깊다(16.7)	기타(33.3)
	코너장	불편(58.3)	기타(41.7)		
	상판 선반	편리하다(58.3)	불필요(16.7)	기타(25.0)	
	시스템키친	깔끔하다(33.3)	괜찮다(25.0)	싫다(25.0)	기타(16.6)
	갤러리형	만족(25.0)	부적합(25.0)	수납걱정(25.0)	기타(25)
	아일랜드형	만족(41.7)	하고싶다(33.3)	기타(25.0)	
수납원칙	배치방법1	사용횟수(31.6)	무게고려(10.5)	기타(57.9)	
	계절용품	분류안함(90.9)	기타(9.1)		
기타	부엌첨가기능	다과(25.0)	여가활동(25.0)	기타(50)	
	이외불만사항	수납장부족(20)	조리환경부족(15.0)	기타(65)	

6) 울산시 소재 이마트, GS마켓, 현대백화점, 부엌용품점 등에서 조사.

3)수납위치별 수납물품유형으로 많은 종류가 수납되었던 키큰장은 모든 종류의 물품이 수납되어 있었고, 수납물품의 종류와 개수는 상부장이 하부장에 비해 많았지만 무게와 크기를 고려한 수납으로 인하여 수납체적의 경우는 크고 무거운 물품을 수납하는 하부장이 가장 컸다.

4)수납방식은 일반식기류와 식품저장용기류, 식품류의 경우는 정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조리준비소기구와 국자, 뒤지개류 등은 물품의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따라서 수납장의 구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가구에서 정리 없이 뒤섞여서 수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부들의 수납요구는 생활주기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경우 대부분이 싱크대·개수대하부장에 수납이 되어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가구로는 인출식서랍장과 아일랜드로 인출식서랍장은 '만족한다'는 의견이 33.3%이었으며 아일랜드장에 역시 75%이상의 주부가 '만족'하거나 '하고싶다'고 응답했다. 불편을 토로했던 가구로는 키큰장과 코너장으로 사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키큰장과 코너장으로 나타나 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물품의 배치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횟수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주부들이 부엌에서의 다과와 여가활동 같은 작업외의 다른 활동을 원했다.

6) 보유물품을 모듈화 한 결과로 최소 30㎝에서 360㎝로 다양하게 나타나 수납장의 선반높이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하여 30㎝높이로 모듈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수납가구를 제안한다.

1) 물품의 수납방안 제언

부엌가구디자인을 위하여 수납물품의 종류와 체적, 수납방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납방안을 제안한다.

(가) 일반식기류 수납

보유하고 있는 일반식기류는 평균 127개이었으나 매일 사용하는 그릇의 수를 약10-15%정도⁷⁾(4인 가족)로 추정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보관용을 분리하여 수납하도록 하였고 매일 사용하는 일반식기류는 상부장을 활용하며, 보관용은 키큰장을 사용하고 잔·컵류는 상부장에 단독수평수납 하여 사용편리를 도모한다. 포개었을 경우 높이를 고려하여 접시류는 10개, 대접류와 종지류, 공기류는 5개씩 쌓아놓는 것으로 하였다. 잔·컵류는 용품의 특성상 단독수직수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조리준비소기구류 수납

조리준비소도구류는 정리 없이 뒤섞여 수납하고 있었으므로 본 제언에서는 수납장의 칸막이를 이용하여 정리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칸막이가 된 인출식 서랍장을 권장한다.

(다) 식품저장용기류 및 식사용품류 수납

식품보관류 중 찬통류는 일상음식을 보관하는데 사용하

므로 키큰장이나 개수대 상부장 수납을 하고 가끔 사용하는 냉장고 상부장이나 코너상부장에 수납한다.

(라) 조리보조도구류, 조리기구 수납

조리보조도구류 중 조리보조용기류는 코너상부장, 개수대 하부장 수납장을 제안한다. 가열조리기구중 냄비는 단독수평수납을 권장하고 후라이팬류는 하부장에 겹쳐 수평이나 수납보조도구를 활용한다.

2) 작업대별 수납제언

수납요구와 보유물품을 고려하여 각 작업대의 활용방법을 제언한다. 먼저 사용이 불편하여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 코너장상부장은 물품들이 안쪽까지 잘 보이고 수납 및 사용이 용이하도록 슬라이딩 도어 또는 양쪽 여닫이문을 설치하며, 찬통류와 같이 부피가 크지만 가벼운 물품을 수납하도록 하고 코너하부장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열조리기구나 가전부속품류와 같이 정리하기 어려운 물품을 단독수평수납으로 사용하기 쉽게 수납한다. 가열대 옆 작업대는 사용이 빈번한 국자·뒤지개류를 따로 수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작업대의 상하부장 중간의 벽면을 이용하여 작은 양념병이나 정수기용 일상 컵을 보관하도록 하며 작업대상부장에는 빈번한 사용이 일어나는 도시락이나 찬통류를 키큰장과 함께 수납하도록 한다. 키큰장은 가공식품의 보관 등의 수납물품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슬라이드 선반을 이용하며 너무 높지 않게 설치하여 손이 닿지 않는 불편함을 제거하였다. 가열대하부장은 냄비나 후라이팬 등의 수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인출식 서랍장을 설치하고 개수대하부장은 다양한 형태의 식생활용품이 수납되도록 칸막이가 없도록 하며 수직수납을 해야 하는 도마나 쟁반과 소형조리보조용기류 등의 수납을 위하여 수납보조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물품이 수납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수납요구와 보유물품을 고려한 작업대의 활용방법을 제언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다.

3) 부엌가구 디자인⁸⁾

부엌가구는 수납방식, 수납위치 등을 고려하여 왼쪽 준비대를 시작으로 개수대-조리대-가열대-배선대-키큰장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부엌가구의 총체적은 약 4m² (보유물품체적 2.7m³ + 여유분 40%)로 하였으며 키 162㎝로 가정하여 하부장의 높이를 860㎝로 하였고 상부장의 깊이는 340㎝, 높이는 700㎝로 하였다. 키큰장의 높이는 천장고를 고려하여 2200㎝로 하였다. 부엌의 배치는 개방형 부엌형태(LDK형)가 많아 ㄱ자형으로 배치하였다.

참고문헌

1. 김선중·권명희(2003), 수납물품량에 따른 부엌수납가구 계획,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5(1). 77-89

8) 수납가구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수납물품의 종류와 양, 활동을 위한 여유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제언에서는 공간의 여유분을 40% 정도로 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7) 현장조사서 면담결과

2. 권명희(2001), 아파트 식생활영역에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3. 김현아(2002), 강남지역 주택시장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박영순·최지영(2005), 주방 가구디자인 모듈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7(2). 61-64
5. 박영순·신인호(1998), 거주 후 평가(P.O.E)에 의한 아파트 수납공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내디자인학회지, 9. 134-138
6. 박영순·윤지영·한정원·이윤정(1997), 주택규모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수납물량의 차이와 이에 따른 수납공간 계획, 대안가정학회지, 35(3). 221-230
7. 신경립 외(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 심현숙·신경주(1988), 중류 가정 부엌의 수납장 모델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6, 159-176
9. 윤정숙·이지순·최현진·박지현(2002), 아파트 규모별 수납실태 및 거주자 요구 조사, 한국주거학회, 13(6). 155-160
10. 윤복자·박영순·박남희·조명은·신영숙·유옥순(1998), 서울시 거주자의 부엌기기의 보유현황 및 수요예측, 한국주거학회지, 9. 87-97
11. 윤복자·박영순·박남희·조명은·신영숙·유옥순(1999), 부엌 수납장 평면계획을 위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학회지, 13. 57-68
12. 윤정숙·김선중·권명희(2001), 아파트 수납가구 디자인 개발, 연세대학교
13. 중앙일보(2005.3.03), 지방아파트, 대형화·고급화'바람'
14. 홍이경·오혜경(1997), 아파트의 수납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1. 3-10